

핵실험 한 달, 지금 평양은

‘핵무장’ 이후 첫 겨울

‘핵보유’ 선전탐 뒤 경제난 그늘이...

9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꼭 한 달이 됐다. 그동안 한 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결국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 하면서 외형적 긴장상태는 많이 완화됐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북한의 반발은 여전하다. 북한 현지는 어떨까.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회원들과 평양 남새온실 준공식 참석차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북한 평양과 남포, 묘향산 등을 다녀온 본지 김정주 기자가 전하는 핵실험 이후 북한 모습을 세차례 나눠 실는다.



6일 오전 평양역에서 내린 주민들이 빠른 발걸음으로 일터로 향하고 있다. 평양엔 이날 오후 첫눈이 내렸다.

평양=김주정 기자

6일 오후 7시. 땅거미가 내려앉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 첫눈이 내렸다. 일요일 전날까지만 해도 예년보다 평균 10도가 넘는 화창한 날씨였다. 하지만, 한파는 ‘세계에서 가장 들어가 어려운 나라’의 국경도 어김없이 뚫었다.

이날 오전 7시 평양역 스피커로 울려 퍼지는 ‘그리운 장군님’이라는 노래를 들으며 일터로 향하는 평양 시민들의 발걸음은 활기찼다. 거리에는 핵보유를 선전하는 구조물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5천년 역사의 민족적 사변’이라는 ‘핵 보유’도, 두꺼워진 옷차림도 시민들의 굳은 표정을 감추진 못했다. 평양에 겨울이 온 것이다.

핵실험 이후 한 달. ‘세계 사회주

北 들녘엔 수해 복구·김장 준비 ‘한창’ 아파트서도 나무뿔감...힘겨운 겨울나기

의 사상의 수도’를 자부하는 평양은 두 얼굴을 하고 있었다.

4일 오후 중국 선양(瀋陽)공항에서 ‘고려항공 JS156편’을 타고 40분을 날아 도착한 평양에선 체제단결용 붉은 구호가 일행을 맞았다.

평양역엔 ‘핵보유국’이 된 5000년 민족사의 역사적 사변을 길이 빛내자’가, 평양육아원에는 ‘핵실험에 성공한 그 분배로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자’가 내걸려 있는 등 거리 곳곳에 구호가 넘쳐났다.

이날 저녁 북한 당국자들과의 만남에선 이같은 구호가 말하는 바가 확실하게 느껴졌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남측에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미제의 공격에서) 지켜줄 텐데 왜 나서서 제재

총의 분위기 변화를 확인해왔다. 그는 “당시만 해도 미사일 발사 실패와 대북금융제재의 영향 탓인지 북한 당국자들은 긴장되고, 뭔가 힘들어 하는 모습이 역력했는데,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평양 남새 비닐온실 및 냉장창고 준공식’이나, 중국 베이징(北京)까지 타고 나왔던 고려민항에서 만난 북한 주민들도 “우리는 미국과 항상 전쟁상태였다”며 “이제 쳐들어 오더라도 믿을 것이 있다”고 안심하는 모습이였다.

그렇다고 북한이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전쟁’에 대비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일요일인 5일 대동강변과 모란봉 공원에 꽤 많은 가족 단위 주민들이 마지막 가을 햇살을 즐겼다. 낚시를 하는가 하면,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다. 인민학생 몇몇은 학교에서 내준 그림속제를 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남포 ‘서해감문’과 묘향산을 가는 고속도로변에서 바라본 북한 들녘은 김장준비와 수해복구가 한창이었다. <2면으로 계속>

광주도시철도 2호선 지상고가로

2008년 착공...9,444억 투자

광주시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철제 경량전철 지상고가 방식으로 잠정·결정하는 한편 노선과 중점되는 백운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 개설 공사를 오는 2008년 동시 착공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시가 시의회에서 백운고가 철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시는 총 9천 444억원(국비 5천666억원, 시비 2천 844억원, 지방채 944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철도 2호선(순환선) 공사를 2008년에 착공, 2015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 조사는 도시철도 2호선의 연장을 27.4km에서 22.1km로, 정거장을 34개소에서 28개소로 각각 줄임과 동시에 철제 경량전철 지상고가 방식 도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2월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노선과 정거장 축소)시 경량전철 도입 등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 도시철도 건설방식을 내년 6월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호선 일부 노선이 백운고가 공사(2011년 완공)와 겹치기 때문에 2호선 설계시 백운고가 지하차도의 선형에 맞춰 도시철도 노선도 설계할 방침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社 告

光州日報가 인재를 찾습니다 제55기 수습기자 모집

권위와 전통의 광주일보가 제 55기 수습기자를 공개 채용 합니다.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명실상부한 호남 지역 대표신문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광주일보는 명석한 판단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갖춘 패기있는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지와 보람의 광주일보와 함께 미래를 개척하십시오.

1. 모집대상

모집부문	인원	자격및 대상
취재 수습 기자	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석사학위 소지자는 1974년 이후 출생자 가능)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해외여행 경력사유 없는 자 군필자(남자)

2.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다운로드 www.daeju.com
- ▷명함판 사진 1매(입사지원서 부착)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자는 학부성적 포함)
- ▷자격 및 면허증, 외국어 성적증명 사본(소지자에 한함)

3. 전형 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일 정
▶입사지원서 배부 및 접수	2006년 11월 6일~11월 15일 18:00시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06년 11월 16일
▶필기시험 (국어/상식/영어/논문)	2006년 11월 19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06년 11월 20일
▶면접	2006년 11월 22일
▶최종합격자 발표	2006년 11월 27일

▷서류접수처: (501-711)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무등빌딩 9층 대주 그룹기획실 인사관리팀(우편접수 및 직접 방문)

▷필기시험 장소: 미정(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4. 합격자 발표

▷각 전형별 본보 지면 및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

美 중간선거 민주당 압승

12년만에 하원 장악...주지사도 28곳 확보

미국 중간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이 하원 과반 의석을 무난히 확보, 1994년 이후 12년 만에 하원을 장악했다.

<관련기사 6면>

민주당은 또 36개 주에서 실시된 주지사 선거에서도 뉴욕, 오크하이오, 매사추세츠, 콜로라도주 등에서 승리

함으로써 전체 50개 중 최소 28개 주를 차지, 2008년 대선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다수석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6석 중 이미 4석을 확보한 데 이어 조박빙 경합지역인 버지니아와 몬태나 2개 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모두 근소한 표차로 앞서고 있어 최소한 50대 50의 동석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나머지 2개 주에서도 승리하면 상원까지 장악하게 되지만 동석이 되면 상원의장인 딉 체니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함에 따라 임기 2년을 남겨둔 부시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면접>

후원대학 장학 58년 역사인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sbu.ac.kr

4세대로 달려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sc.ac.kr

100년의 사람 - 부채표 동화약품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부사장은 김동원